

# 大學과 社會變化

李 孝 善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대학이 가치관을 재정립할 때 그 理性的 빛은 더욱 강해지며 일부 학생들의 知的·學問的 편견을 압도해 버릴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부정, 비판, 회의가 따르기 마련인데 社會는 대학의 이와 같은 고통을 대신 떠맡을 수 있도록 社會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I

東西古今을 통하여 대학은 인격의 도야와 眞理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대와 社會에 따라 대학의 성격이 변모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초기 대학의 근원이 12세기의 歐羅巴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시대는 敎會와 政治權力이 지배하는 社會였기 때문에 대학의 사명은 주로 성직자와 관료들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敎회의 부패로 인한 中世社會의 몰락과 함께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강조하는 르네상스의 풍조가 유럽 각국에 번지면서 근세대학은 수많은 사상과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눈을 뜨면서 인간의 능력은 무한히 확대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수많은 社會문제는 사람들을 하여금 社會를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만들었고 대학은 이 와중에서 資本主義에 맞서는 社會主義의 싹이 움트는 것을 경험했다.

곧 이어 과거의 전쟁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第1次, 第2次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은 급속도로 팽창되었고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의 대량 배출이 대학에 부과된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 社會의 異質性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에서 시민의 대량생산을 겨냥한 대학교육의 대중화도 간과할 수 없는 추세이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를 바라보는 일부 학자들은 후기 산업사회에 도래를 예측하면서 지식, 기술 정보의 집산지인 대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은 社會의 변화와 함께 그 성격이 바뀌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과 社會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社會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중에는 앞에서 시사

한 대로 경제적·기술적 요인, 사회분화, 인구, 갈등, 가치관이나 이념 등처럼 사회체제내에 내재해 있는 내부적 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 문화전파, 交易 등으로 일어나는 체제 외부적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각각의 요인이 대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동시에 대학이 사회갈등의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서 정말로 해내야 할 우리 사회의 價値觀의 정립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이 이제까지 밖으로 쏟던 정열과 시간을 안으로 돌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의 확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와 대학의 자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II

敎育과 社會의 관계는 보는 이에 따라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지지만 敎育의 기능에 중요성을 둔 관점이 지배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사회구조가 좀더 나은 상태로 영끌어 가는가 아니면 더 경직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에서 파생된 모순이 敎育에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대학의 기능은 敎育, 연구, 봉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지식의 전달과 직업 준비를 위한 敎育, 학문의 이론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의 노력, 그리고 전문 지식인의 공급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활동이 그것이다.

社會化에 강조를 둘 경우 대학은 개인의 역할 습득과 문화에 대한 동질화와 아울러 기존 정치 질서와 사회구조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學父母의 입장에서 보던 자녀들이 지식 습득과 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을 바라며 가능하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대학시절에 습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敎育기관으로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처럼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敎育을 받는 젊은이들은 眞理와 眞實을 추구하는 知的 敎育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과 社會變化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학이 '60년대 이후 급격한 公業化에 노출되면서 반응하는 양식을 보아도 그렇다.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가장 빠르게 바꾸므로 변모시킨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이다. 第3共和國이 경제발전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부각시킨 것은 국민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社會經濟構造의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권층도 역시 경제발전의 성공을 정권의 정당성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불분기 시작한 경제성장은 '7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국민 총생산고의 증가는 물론 산업별 경제활동 인구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의 성격을 보임에 따라 산업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은 연구와 봉사기능의 확대로써 이루어져 왔다. 물론 선진사회처럼 대학과 사회간의 物的·人的 자원의 교류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은 産業化가 요구하는 인력개발에 몰두해서 많은 전문인력을 사회에 공급해 왔다.

산업화는 또한 '50년대, '60년대의 사회에 지배적이었던 전통가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대신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대학에도 스며들어 대학내의 인간관계는 물론 대학문화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교수들 역시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연구, 조사의 기능을 확대해 왔고 메스 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敎育의 기능까지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公業화만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운 근대화 정책은 '70년대 중반부터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각종 사회문제들이 대학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規範의 해이와 각종 사회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성장이 촉진되면서 산업화가 본래도에

오르면 무질서와 혼란이 따르게 되고 社會도 개인의 행위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의 경우만은 아니고 先進工業國들도 겪은 과정이며 특히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룬 獨逸 등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傳統과 現代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합해서 큰 대화를 성취했다고 하는 日本 사회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급속한 공업화를 겪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의 각 부문간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대부분의 사회가 실패했고 특히 빠르게 발전한 後發工業國家에서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산업간의 격차, 소득불평등, 노동문제 등과 아울러 정치·경제·사회 부문간의 불균형 발전 등을 예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척될 때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 기존 權威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要求나 欲求가 다양해져서 과거의 방식이 새로운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既存權威를 받쳐 주고 있는 가치에 대한 회의와 부정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권위가 되고 있는 既得權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데서 도전이 일어난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서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 산업화와 함께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한 사회조직을 향해 갈수록 눈에 띄는 현상이 分化과정이다. 分化란 하나의 복합기능적 역할구조에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構造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서도 學問分化에 따라 학과가 다양해지고 전문분야의 경제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대학이 흔히 중앙집중식 난방체계에 의해서 연결된 독립학과들로 비유되거나 아니면 각 부분

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집합체로 생각되는 것은 학문의 전문성과 아울러 인접학문과의 연계성을 모두 중시하는 표현들이다.

지난 20년 동안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이 대학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학과나 행정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학문분화에 의한 다양한 학과의 설치 여부가 학문 외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의 善導기능이 점점 필요해져 가는 추세에 직면해서 대학 밖이 아닌 대학내에서 行政組織을 변화시키고 지도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아쉬운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학의 변화를 거론할 때 대학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解放 직후 인구가 2천만이었을 당시 대학생수가 겨우 1만여 명이던 것이 '70년에는 전문대학생수까지 합쳐 16만여 명이었다가 '85년 현재에는 무려 11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26만 정도가 전문대학생수이지만 2000년대까지는 4년제 대학 학생수만도 1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인구의 급증은 국민들의 끊임없는 교육에 대한 열광 때문이기도 하지만 1955년부터 1960년까지 6.25동란 후 베이비·붐을 타고 가장 높았던 인구증가율이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의 대학인구의 증가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 경제발전으로 고급人力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再修生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여하튼 우리 나라는 인구 천만당 대학생 수에 있어서 日本과 西獨을 앞지르고 美國 다음의 세계 제 2위에 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의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이제 겨우 중진국의 자리를 굳혀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를 비교할 수는 없다.

대학인구의 급증은 우리에게 과밀학급을 안겨 줌으로써 교수와 학생 사이의 공동체감을 파괴하고 있다. 대체로 연구기능과 지식 전달의 능

력을 언제나 조절해야 하는 교수들은 학기가 진척되어 가면서 학습진도의 결과물 학생들의 일괄표정에서 읽어 가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단원학급 앞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기대같은 완전히 깨지면서 교수와 학생간의 相互作用 없이 오직 일방적인 지식 전달 기능만 되풀이 된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익명성에 당황하고 더구나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나아가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학습습득의 正道를 외면하고 외궤으로 파고드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소위 '학원의 사태'라고 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과밀교실이 대학이 해소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 III

解放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 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동안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점점 향상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어떤 이는 과거의 대학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대학이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어떤 이는 요즘 대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를 개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대학교육의 大衆化로 인한 기능인의 대량생산과 고급失業者의 量産을 우려하기도 한다.

우리가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을 대학이 안고 있는 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대학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를 규탄하는 '현실 參與의場'으로 계속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려를 표할 뿐 뚜렷한 대책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어떠한 社會問題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비록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지만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문제를 잘못 진단했을 때 아

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한두 가지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 대학생들의 社會參與 문제는 세번재의 경우로서 構造的 요인, 학생들의 意識의 문제, 압력집단의 위약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다. 그리고 각 요인을 따로 떼내어 내면 그런 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한국의 學生運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제하의 식민지 시대를 포함해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역사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은 수많은 政變과 정치·경제적 쟁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항해서 행동주의로 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대학생들의 意識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언제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준거로 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조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또 이런 성향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면서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을 바탕으로 행동주의로 나타난 것이 한국 학생운동의 특수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價値觀 주입과 또 한편으로는 부단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는 데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대학의 갈등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소수인들에 의해서 악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나 노동자, 농민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쟁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이 쉼 사이 없이 정치적 쟁점에 휘말릴 경우 대학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안정과 변화의 양대 세력에 끼어 앞으로 또 얼마나 대학이 사회갈등의 최오리에 달려들 것인가 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대학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학생들이 장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가치관을 정립해서 주입시키는 것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 IV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이 社會變動의 촉발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찌기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관념 등 주관적 가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가 대학이 품고 있는 理想의 방향으로 변화해 가기를 바란다면 대학은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위한 價値觀 확립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價値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세대간을 뛰어넘는 공통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은 대체로 日帝下의 식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해방 후의 권위주의 시대를 두루 경험하였다. 40대는 日帝시대는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공산주의의 잔학성과 권위주의를 알고 있다. 반면에 戰後세대는 오직 권위주의 시대만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간의 경험의 격차를 넘어서 모든 세대를 끌어모을 수 있는 價値의 정립이 필요하며 그것은 오직 民主主義에 대한 신뢰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구호로만 많이 외쳐지지만 ‘남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자기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權益을 먼저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核心이다.

민주주의는 그 과정이 중요하며 타협과 게임

의 규칙에 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內面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있고 민주주의 역시 피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치관 정립은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제도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일이다. 자본주의는 체제내적인 결함으로 不平等을 함축하고 있지만 체제에 어느 정도 수정만 가한다면 어떠한 世界變動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제도라는 것이 200년 이상 증명되어 왔다.

더구나 자본주의는 융통성이 있고 쾌쇄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미시켜 歐羅巴에서는 평등을, 日本에서는 충성심을, 美國에서는 경쟁관계를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공동체의식을 가미하거나 아니면 평등사상을 강조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福祉분야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儒·佛·仙과 같은 전통사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주장하는 이념, 주의 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상의 경직성을 막는 동시에 창조적인 知的 活動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사회가 多元主義의 民主主義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社會構造가 그만큼 융통성이 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의 전통적 가치는 사회의 유지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부정적인 면이나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美德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하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 아래서 일부 전통가치가 의식구조의 불합리한 요소로 남아 있는지 끊임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가치를 잠식하면서 새로 일어나기 시작한 物質主義와 個人主義는 그 폐해를 강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대학이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물질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個人主義 역시 이기주의와 구별되면서 개인이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각각의 재능, 취향, 감성 등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삶의 質을 높일 수 있음을 대학은 가치관의 정립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創造性을 고양시키는 면에서 획일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권장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섯째, 共同體의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겠다.

힘의 萬能主義, 책임이 안 따르는 自由, 보편주의보다는 특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폐쇄성 등은 국민의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거추장스럽더라도 언제나 승리에 바탕을 둔 의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겠다.

## V

대학이 가치관의 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대학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의 정신과 성격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정당성을 때로는 인정하면서도 왜 이러한 도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상당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도 역시 학생들에게 전수되는 학문이나 지식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명확한 구분과 도덕적 함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은 언제나 現實보다 앞서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현실사회의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비슷한 현상이다.

美國의 南北戰爭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대학생들은 노예해방을 부르짖었고 日本天皇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대학에서 나왔다.

현실에 대한 대학의 이와 같은 인식은 바로 비판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대학에서조차 비판적 사고가 소멸된다면 그 나라의 앞길이 암담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판적 사고란 문제가 있음을 우선 인정하고 그것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날카로운 理性의 빛으로 검토해 보는 사고과정일 것이다.

대학이 가치관을 제정립할 때 그 理性의 빛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일부 학생들의 知的·學問的 偏見을 압도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부정, 비판, 회의가 따르기 마련이며 사회가 이것을 억누르기보다는 대학의 이와 같은 고통을 대신 떠맡을 수 있는 사회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60년대에 日本의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우리에게서 모두 좌경화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대학의 葛藤을 떠맡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대학은 사회갈등에 휘말려 단기간에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가치관을 부여해 주고 설득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에서의 가치관 정립의 노력과 함께 사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그것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意識 속에 내면화된 가치와 현실의 制度化가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도의 학문적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보장되는 사회분위기가 있어야 하며 대학은 물론 대학과 사회간에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價値혼돈의 시대에 살면서 카리스마적인 思想家가 없음을 아쉬게 여기며 오늘의 문제를 놓고 元老 碩學들간에 大論爭이 없는 사회분위기를 더욱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